

# 어서와, 전북은 처음이지?

### 올 여름 중국관광객 2천여명, 전북도 유치 확정 중국 각 계 전문가 사전답사단 81명 군산항 입항

전북도는 여름 방학과 휴가철 연계 전북특수목적 여행상품을 집중 홍보하여 오는 7월과 8월 사이 6차례에 걸쳐 약 2천여 명의 중국관광객을 유치했다고 23일 밝혔다.

전북도는 '태권도', '전통공연', '방송' 등과 관광지를 연계한 특수목적여행상품(SIT)을 2014년부터 집중 홍보하여 중국 석도~군산항을 연계하여 매해 목적형 중국관광객을 유치해 오고 있다.

이번 여름방학 기간 동안 도내 학생들과의 교류 행사를 희망하는 중국의 문화예술단체 4개사는 이미 7월과 8월사이 약 500여명의 중국학생과 학부모로 방문단을 꾸리고 있다고 한국측 파트너 여행사는 전했다.

지난 1~2월 겨울방학 동안에는 문화체험과 교육, 교류 활동을 목적으로 중국 허북성, 산둥성, 안휘성, 사천성

등 각 지역의 학생과 학부모 320여명이 전라북도를 방문한 바 있다.

또한 여름휴가철을 활용한 중국노인 스포츠 단체(게이트볼) 100여명이 전북도 방문을 계획하고 있다. 이들은 도내에서 게이트볼 교류행사 후 이를 정도 전북을 둘러볼 예정이다.

또 전북도는 태권도 성지인 무주 태권도원과 연계한 관광객 유치활동도 지속 추진해 오고 있다.

특히 올 여름방학 기간에 전라북도 답답여행사(한그루여행사)와 전주대 학교가 협력하여 중국 태권도 수련생 및 학부모 1,300여명(2회) 유치가 확정됐다.

'한중·문화·스포츠 교류행사'와 관련하여 중국측 사전답사단 81명이 4월 23일 석도해리를 이용하여 군산항으로 입항했다.

이번 답사단은 중국에서 문화스포

츠 교류행사를 주관하는 기관 및 단체 전문가로 학교, 학원, 예술단, 무도관, 방송사 관계자로 구성되었으며, 2박 3일 일정으로 군산과 익산, 전주, 임실 등을 방문하여 현지 행사장 등을 꼼꼼히 점검하고 돌아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전북도는 오는 6월에 군산과 중국 석도 직항로에 최대 1,200명 승선이 가능한 신조선 2척이 집중 투입·운항하는 것에 맞춰 수요자 니즈에 맞는 여행상품을 개발하는 등 중국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 적극 대응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전북도의 우수한 자원을 활용한 특수목적여행상품으로 전북도에 체류(숙박)할 수 있는 교류상품을 집중홍보함으로써 '목적형 관광지, 전라북도'가 될 수 있다"며 "최근 증가하고 있는 동남아 관광객 유치 확대를 위해서도 특수목적여행 상품 개발에 적극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제13회 세계태권도 문화 엑스포 개최하라"

23일 전주시 전북도의회 브리핑룸에서 박영진 전 전라북도 태권도 협회 부회장이 제13회 세계태권도 문화 엑스포 개최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 "올바른 민주시민 되기 꿈 키워가요"

### 전북선관위,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 대상 교육 실시

전북도선거관리위원회는 23일 전주 청소년꿈키움센터 교육생을 대상으로 민주시민교육을 실시했다.

이번 민주시민교육은 청소년의 능동적이고 건전한 민주시민 의식 함양을 위해 개설된 프로그램으로, △청소년 생활 주변의 정치활동 살펴보기 △참여의 필요성과 방법 △토론을 통한 민주주의 참여방법 등 청소년 눈높이에 맞춰 진행됐다.

주시민 의식 교육의 필요성을 인식하고 지난 3월 19일 전주청소년꿈키움센터와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으며, 이 교육은 오는 11월까지 매월 1회씩 총 8회에 걸쳐 진행된다.

전북선관위 관계자는 우리 청소년들이 생활주변에 관심을 갖고, 올바른 민주시민으로 성장할 수 있도록 다양한 교육 프로그램 개발에 노력할 것이라고 밝혔다.

/김진성 기자



## 전북 대도약 밑거름 다지기 '총력'

### 도정 현안 해결 위해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 예산정책협의회 개최

전북도는 23일 국회에서 지역 국회의원 보좌관과 예산정책협의회를 개최하는 등 정치권과의 적극적인 공조체계를 전개하고 있다.

전북도의 이 같은 정치권 공조활동 배경에는 부처별 예산편성이 5월 중순경 사실상 마무리될 예정으로 예산반영이 미흡한 사업과 신규사업에 대해 정치권과 공동 대응전략을 모색하기 위함이다.

예산정책협의회에서는 지역 국회의원 예산정책보좌관 10명과 이일택 정무부지사를 비롯한 간부 공무원이 대거 참석, 삼락농정농생명산업, 주력산업의 체질개선과 융복합 미래산업, 여행체형 1번지, 새만금, SOC 등 내년도 국가예산 확보에 집중 대

응하여 전북 대도약 발전을 위한 부처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힘을 모으기로 했다.

협의회에서 논의된 분야별 주요 사업을 살펴보면 아시아스마트농생명밸리로 육성하기 위해 '중자고품질화 핵심기술기반 구축' 5억원, '지능형 농기계 실증단지 구축' 120억원, '김제유지 가금밀집지역 축사매입' 90억원, '디지털라이프서비스실현을 위한 홀로그램 기술개발' 265억원, '상용차산업 혁신성장 및 미래형 산업생태계 구축' 128억원, '중고자동차 수출복합단지 조성' 50억원, '조선기자재 기업 업종전환센터 구축' 90억원, 국가종합실증연구단지 구축 시범사업으로 '태양광발전성능 장기

모니터링 인프라 시범구축사업' 30억원, '전라유학진흥원 설립' 5억원, '장수가야유적 복원정비사업' 24억원, '국립 문화재 연구소 건립' 87억원 등이다.

또한, 새만금 공항, 새만금신항만, 철도와 함께 복합물류 트라이 포트(Tri-Port) 조기 완성을 위해 '새만금 국제공항 용역비', '새만금 신항만 부두시설 건설' 재정사업 전환이 필수적이고, 새만금의 성공적 내부개발 촉진을 위해 새만금 ~전주 고속도로 등 '새만금 SOC 조기 구축', 새만금 투자활성화를 위한 '새만금 산단 임대용지' 280억원이 정부예산안에 반영 될 수 있도록 요청, 이밖에도 지역균형발전 및 SOC 확충, 서민 중소기업 지원, 쾌적하고 안전한 생태환경 구축, 모두가 누리는 포용적 복지 등 국가예산 중점확보사업이 부처 단계에서부터 최대한 반영될 수 있도록 건의했다.

/김진성 기자

## 전북농기원, 소규모 창업장 대상 맞춤형 컨설팅 실시

전북도농업기술원(원장 김학주)은 지역농산물을 이용한 가공 창업으로 고부가 가치 창출 및 경쟁력 있는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신규창업사업장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각 소규모 창업사업장을 대상으로 4월 18일부터 5월 17일까지 실시한다고 23일 밝혔다.

보람 찾는 농민, 제값 받는 농업을

위한 삼락농정 일환으로 추진될 이번 컨설팅은 전문가의 사업장 방문을 통해 도내 19개의 소규모 가공 창업농을 육성하기 위해 생산·가공·상품화 할 수 있는 전문적인 지식과 노하우를 배우게 된다.

주요 내용으로는 전문성과 현장경험이 풍부한 전문가의 맞춤형 기술 지원으로 구성된다. 인허가 등 법적

절차, HACCP 인증, 회계·세무관리 뿐만 아니라 브랜드 및 상품화 개발·포장제작기법과 같은 마케팅 관련 실무에도 도움이 되는 내용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기술원은 이번 현장 맞춤형 컨설팅을 통해 농업인들의 창업에 대한 두려움을 자신감으로 바꿔주고, 안정적인 정착 및 성공적인 창업에 유도하여 지역의 가공사업에 기여하는 농업인을 양성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익산=장양원 기자

## 고속도로 정체구간 추돌위험, 내비게이션이 미리 알려준다

### 행안부, 고속도로 정체 알림서비스 오늘 시작 아이나비·맵퍼스2곳 先시행... 하반기 5곳 추가

"당동, 전방 2km 앞에 정체 상황이 있습니다. 운전해 주의하세요" 24일부터 고속도로 정체로 인한 추돌 위험을 내비게이션이 알려주는 서비스가 시행된다.

행정안전부는 한국도로공사, 내비게이션 운영업체인 아이나비·맵퍼스와 함께 '고속도로 정체 알림서비스'를 시작한다고 23일 밝혔다.

이 서비스는 전방 2~3km의 고속도로 정체 정보를 운전자에게 경고음과 음성으로 알려준다.

고속도로 정체 상황이 발생하면 도로공사가 정체 정보를 '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로드플러스)'에 입력해 차량 내비게이션에 표시시키는 방식이다. 운전자가 전방 도로 정체 상황을 알게 돼 감속 운행할 수 있고 졸음과 같은 집중력 저하나 부주의를 각성시키는 효과가 있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에서 발생한 차량 추돌 사고는 최근 3년(2015~2017년)간 69건으로 전체 교통사고(2197건)의 3.1% 수준이다.

하지만 치사율이 25%로 일반 교통사고(10%)의 2.5배에 달한다.

고속도로에서 고속으로 주행하다 충분한 사전 감속조치 없이 그대로 충돌하게 되는 탓이다.

고속도로 정체 구간 추돌 사고의 원인으로는 전방 주시태만이 34%로 가장 많고, 졸음(18%)과 안전거리(13%), 과속(8%)으로 인한 경우도 상당하다.

행안부는 하반기에 서비스 시행 업체를 티맵(T-map)과 엘지유플러스(LGU+), 네이버 등 5곳으로 추가할 계획이다.

류회인 행안부 재난안전관리본부장(차관)은 "고속도로 정체 정보를 운전자에게 신속히 전달해 사고 발생 위험을 줄일 예정"이라며 "앞으로 정체 구간뿐 아니라 상습 결빙과 안개 구간 등에 대해서도 교통 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뉴시스



구독·광고문의: 063-288-9700

www.jmaeil.com